주어사지 안내판 수정 1년…역사 가르침 기려

전국비구니회, 4월 23일 기념행사
주어사지 역사 · 보존 학술 담론
"종교 공존 속 유산 가치 재정립"
연등 설치 · 도량 정화 현장 실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는 4월 23일 여주 주어사지 법당 터 일원에서 '다종교 시대의 진정한 가치, 역사의 가르침 주어사'를 주제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연등 설치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을 맞아 의미를 점검하고 주어사지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종교 시대 속에서 전통 사찰 유적의 가치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23일 여주 주어사지 법당 터 일원에서 '다종교 시대의 진정한 가치, 역사의 가르침 주어사'를 주제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은 지난해까지 불교사적 가치가 배제된 채 가톨릭 중심으로 서술됐다. 이에 전국비구니회는 역사 왜곡에 문제의식을 갖고 수정 운동에 나서 지난해 4월, 이를 바로잡는 성과를 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은 미래의 삶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종교 간 화합의 상징인 주어사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담론에서는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 1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종합안내판 수정은 단순한 정정 작업을 넘어 역사 인식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그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어사지의 종교 공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계와 접촉, 공존의 흐름 속에서 여러 주체의 참여와 조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교수불자연합회장은 주어사지의 보존 방향에 대해 '공동순례의 장'을 언급하며 "종교 간 갈등이 아닌 공존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된 종합안내판에서 영상해설과 연구 논문 요약, 관계자 구설까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와 관련해 "종교유산의 해석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으며 "종교계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공공성과 형평성,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종교갈등과 화합의 상징과 같은 주어사지에 대한 정부의 종교편향적 정책이나 특정종교 지원 행태를 감사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후 연등 설치와 도량 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현장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지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한국 종교사와 사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
"치유 · 희망의 정치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화합된 세상을 염원하는 봉축탑이 국회를 환히 밝혔다.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는 4월 30일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불기 2570(2026)년 국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봉축탑은 백제 석탑의 정수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형상화해 조성됐다. 탑 양옆에는 금강역사가 배치됐다. 이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하나임을 자각하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국가의 융성과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축탑은 5월 29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슴에 새겨 국민께 힘이 되는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4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 회향

4월 24일, 봉녕사 단일계단서
25명 스님 식차마나니계 수지
진상 스님 "삶의 이정표 세워"



조계종의 예비 비구니 스님 25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제34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이 4월 24일 수원 봉녕사 단일계단에서 회향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25명의 스님들이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하며 청정한 계맥을 잇는 출가수행자로서의 서원을 새롭게 다졌다.

이번 수계산림은 4월 21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3박 4일간 진행됐다. 수계자들은 기간 동안 습의와 강의, 각종 의례에 정진하며 계율의 의미를 체득하고 철야정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계식과 회향식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국장 지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계자들은 수행자로서 청정계율을 수호하고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회향식은 유나 경암 스님이 고불식 당시 습의도감 스님에게 건넸던 죽비를 되돌려 받는 의식을 통해 수계산림의 원만한 회향을 알렸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수계는 단지 계율을 받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서약이며,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첫 번째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축복의 순간, 하늘과 땅, 모든 존재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며 "수계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깊은 수행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식차마나니계는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2년간의 예비 수행과정이다. 계를 받은 식차마나 스님들은 이 기간 계율 실천과 수행에 전념한 뒤 구족계를 수지해 정식 비구니로서 승가의 일원이 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테라와다 '탁발·법회' 열린다

청주 국제명상센터 시마 설립
미얀마 파욱 스님 23명 방한해
5월 23 · 26일 탁발, 24일 법회

테라와다(상좌부) 전통의 '시마(Sima, 계단)' 설립식과 대규모 탁발 의식이 청주와 서울 일대에서 거행된다. 초기불교 수행법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주 국제명상센터는 5월 23일 오후 1시 센터 내에서 테라와다 전통 방식의 시마 설립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승단(비구계)을 받는 공간을 뜻하는 '시마'를 설립하는 것으로, 초기불교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미얀마 파욱 상가 스님 23명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탁발 의식은 청주와 서울의 전통 시장에서 진행된다. 5월 23일 오전 9시에는 청주 육거리 전통 시장에서, 5월 26일 오전 9시에는 서울 망원시장에서 스님들의 행선과 탁발이 이어질 예정이다.

테라와다 전통에서 스님들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신도들은 음식과 생필품을 공양하며 공덕을 쌓는다. 금전 보시는 받지 않는다. 음식·과일·생활필수품 등을 공양할 수 있다.

법회도 이어진다. 5월 24일에는 청주 국제명상센터 다목적홀 법당에서 시마 설립 기념 법회가 열리며 다음날인 2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 마포에 위치한 대한불교진흥원 3층 다보원에서 '임종 직전의 업의 작용'을 주제로 파욱 상가 스님들의 법문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청주 국제명상센터에서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얀마 삔우린 파욱 국제명상센터의 수석 명상 지도자인 우 꾸말라비왐사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주제로 수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청주 국제명상센터 측은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테라와다 상가의 전통 의례와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명상 수행이 관심있는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 위한 행진' 미국 이어 스리랑카로

4월 21~28일, 12인 순례단 대장정
보리수 묘목 이운하며 비폭력 강조



순례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깐 꽃 위를 걸어 가는 판냐까라 스님(가운데). 사진출처=AFP 통신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한 불교계의 발걸음이 스리랑카 전역을 적셨다.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스리랑카에서는 '평화의 섬 스리랑카에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행진(A Global Walk for Peace in the Island of Peace - Sri Lanka)'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4월 22일 글로벌 불교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여러 외신들은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보순례에 대해서 특별보도했다. 이번 순례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평화 메시지를 전했던 빤냐까라(Paññākāra) 스님과 12인의 순례단이 주도했다.

21일 이른 아침 스리랑카에 도착한 순례단은 스리랑카 불교의 심장부인 아누라다푸라에 심어진 '자야스리 마하 보리수' 앞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의 직계 후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는 이 보리수에서 가지를 받아 만든 묘목과 닐라기리세야 유적에서 출토된 불사리를 직접 이운하며 걸었다. 이번 도보순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걸어가는 땅마다 뿌리 내리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더했다.

순례단장 빤냐까라 스님은 고불식에서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항상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내면의 조화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처님 성지인 스리랑카에서 짧은 순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순례단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순례의 의의와 소감을 밝혔다.

순례단은 22일 아누라다푸라를 출발해 담불라 황금 사원에서 첫 순례길을 시작했다. 특히 23일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캔디의 불치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스리랑카의 양대 종단인 말왓따와 아스기리야 종단의 종정스님들을 예방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캔디에서 열린 순례단 환영식에는 아마라수리야 스리랑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지 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 성스러운 순례길이 담불라에서 출발하여 부처님의 성스러운 사리와 보리수 묘목을 싣고 섬 곳곳을 누비는 동안, 스리랑카 국민 모두가 평화와 자비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란다"고 순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총 200km에 달하는 이번 순례길은 오는 28일 콜롬보 독립광장에서의 회향식으로 마무리됐다. 순례길에 함께 한 불사리와 보리수는 빤냐까라 스님이 머무는 미국 텍사스의 후엉다오 위빠사나 바바나 센터로 이운되어 불사리는 열흘간 미국에 공개된 뒤 스리랑카로 돌아가며 보리수는 센터에 평화와 마음챙김의 상징으로 식재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님이 만든 짜장이라 더 맛나요"

동행, '찾아가는 짜장 공양'
200가구에 법오 스님 배달도

"스님이 직접 만드신 귀한 짜장이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조 기구에 몸을 의지한 황상환(81) 어르신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방문자들을 반기며 몸을 일으켰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따끈한 짜장 도시락을 건네자 어르신의 얼굴에는 봄볕 같은 웃음꽃이 활짝 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 고소한 짜장 냄새와 함께 자비의 온기가 가득 퍼졌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하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명진)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짜장공양'을 진행했다.

이날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짜장 200인분을 점심시간 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량의 양파와 양배추를 기름에 달달 볶은 뒤 춘장과 특제 육수를 부어 한참을 저었다. 소스가 점차 묵직해지고 고소한 향기가 코 끝에 퍼지며 짜장이 완성됐다.

이날은 특히 법오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회복지팀 6명이 봉사에 동참했다.

정성으로 준비한 200인분의 짜장은 도시락에 담겨 어르신들의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운 오정희(91) 할머니는 스님의 방문에 "인생 졸업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싶다"며 손을 맞잡았다.

법오 스님은 "봉사자들의 마음이 모여 어르신들께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만큼, 불교계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 자비의 손길을 넓히겠다"고 서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조춘자 할머니가 법오 스님이 건네준 짜장 도시락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